Exercise 01

과학 지식이 상당히 확장되면서 지식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즉, 명백한 진리에 대한 이전의 순진한 믿음은 지식의 맥락화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거대 서사의 종말이라는 말로 극적으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전문가의 기술에 대한 완전한 신뢰에서 제한된 신뢰로 바뀌는, 전문 지식에 대한 접근법에서 분명한데, 이 제한된 신뢰는 더 큰 판단의 부담을 개인과 사회에 지운다.

‘과학’에서 ‘연구’로의 중대한 전환이 과학 지식의 생산에서 확인된다. (과학 지식은 우리가 개인으로도 집단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며,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변화에 따라 지식은 덜 확정적이고, 변화에 더 열려 있게 된다.

과학은 ‘확실성, 냉정함, 냉담함, 객관 성, 거리감, 필연성’과 연관되었지만, 그에 반해서 연구는 ‘불명확 하고,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했으며, 돈, 수단, 노하우라는 많은 하찮은 문제에 몰두하게’ 되었다.

Exercise 02

현대 초기의 여행담 독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들과 장소의 서술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지만, 여행 문학은 또한 역사적으로 ‘국가적,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을 고취하는 데 기여해 왔다.

Simon Schama는 바다를 지배하려는 노력이 새롭게 부상하던 네덜란드의 정체성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련을 통해 얻어진 정체성이다.

네덜란드인이 엄청난 어려움에 맞서 견뎌 내는 것을 묘사한 이야기들은 17 세기에 네덜란드 사람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의 핵심을 형성했던 영웅 서사시와 유사한 그 무언가를 네덜란드인들에게 제공해 주었다.

여행 문학 속에 제시된 것과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 네덜란드인들은 일종의 영웅 신화를 만들어 냄으로써 자신들을 표현했다. (여행 문학은 언제나 미지의 땅에 대한 생각에 기반한 이상 향의 건설과 관련 있었다.)

이것은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이상화하는,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한 대중의 신념’이라는 의미에서의 ‘신화’였다.